

# 전국 규모 동시축제 부안서

부안문화재단 '제1회 한국동시축제' 내달 19~20일 석정문화관 일원서 개최  
 학술토크·문학·놀이체험·공연전시 등 네가지 테마로 구성 프로그램 운영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이 국내 최초 전국 규모의 동시축제를 오는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안군 석정문화관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동심의 바다 부안 제1회 한국동시축제에서는 △학술·토크 △문학 △놀이·체험 △공연·전시라는 네 가지 테마 안에서 시인, 연구자, 교사, 어린이, 가족 등 상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술·토크의 주요 행사로는 2020년대 우리 동시문학을 전망해 보는 '학술 세미나', 시인 지망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제1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수상자 박정완 시인과의 만남 등이 있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3명(권영상, 김홍, 김개미)과의 대담은 우리 동시의 개성적 문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학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 '어린이 동시 백일장'과 성인 대상의 '내 최간헐적 백일' 등이 있다. 어린이 부부 백일장은 순바닥 동시(정형시), 자유동시로 나누어지며, 문학동네의 동시집 전집 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 좋은 놀이·체험 테마에서는 엽서와 책갈피를 만드는 시그



제1회 한국동시축제 포스터

립공방 석정문화관 앞마당을 커다란 도화지처럼 활용하는 분필아트, 플라주 기법을 활용해

단어와 단어 사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어(漁) 찾기 등이 운영된다.

공연·전시 테마에서는 오늘의 우리 동시를 성찰하는 기획특별전 '한국동시문학의 어제와 오늘' (1920년대부터~1980년대까지), 동시를 노래하는 백창우와 굴림샤이틀, 폐품을 악기로 재활용하는 유쾌한 공연팀 '씨운드 써커스'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축제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유강희 시인은 "동심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동시축제는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전성기를 맞은 우리 동시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학 장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 한 사람의 공동추진위원장인 배귀선 시인은 "한국동시축제가 이름에 걸맞게 지역을 넘어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축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백일장 및 낭송 대회 등의 참여자 모집은 오는 28일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안군문화재단(☎070-4278-8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18세기 영국 소설 국내 첫 번역

전북대 박재영 교수, 앤 래드클리프 '시칠리아 로맨스' 번역 출간

전북대학교 박재영 교수(영어교육과)가 영국 작가 앤 래드클리프의 1790년 소설인 '시칠리아 로맨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역해 출간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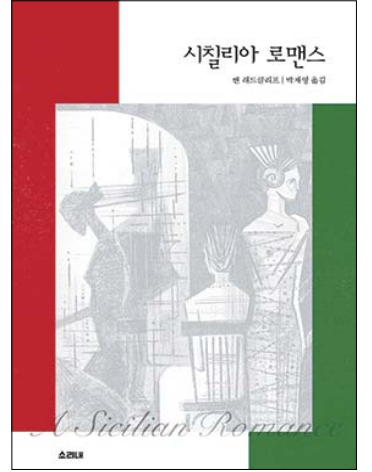


박재영 교수

앤 래드클리프는 18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그간 여섯편의 소설을 썼는데 국내에는 대부분 소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시칠리아 로맨스'는 전형적인 고딕 소설이다. 고딕하면 중세 교회 건축물처럼 웅장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기괴한 면모가 숨어 있는 미스터리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소설도 역시 그런 장면이 많이 보인다. 한때는 웅장했던 성이 이제는 부서진 잔재만 남아 있는 장면이나 자연의 웅장함 속에 인간의 무력함 혹은 작음을 보이는 장면, 그리고 음침한 지하 감옥과 처형 살인 살인 등은 모두 고딕 소설의 특징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줄리아는 버리자 백작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루오보 공작이라는 방해꾼이 생긴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줄리아의 아버지 마찌니 후작은 그것을 원한다. 후작은 아버지의 권위로 줄리아에게 루오보 공작과 결혼하라고 명령한다. 줄리아는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까?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부장제 전통과 문화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 주인공 줄리아는 이런 전통과 문화에서 탈출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버리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처를 입고 이탈리아로 떠난다. 이렇듯 '시칠리아 로맨스'



시칠리아 로맨스 책 표지

는 사랑과 좌절과 도전과 복수와 구원의 이야기다.

박 교수는 "래드클리프는 영어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에서 그녀의 작품은 당연히 읽히고, 담론되고, 연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국내에 그녀의 작품이 번역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번역 출간을 통해 국내 독자들이 영국 문화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했던 래드클리프의 작품에 더욱 친숙해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영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기자

“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13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2023년 4월 22일 오후 3시~3시

###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주매일신문사, 전주시

\*본 행사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전부터 관심집중

지난 12일 기준 예매율 75% 올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7일 개막을 앞두고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국제영화제에 따르면, 온라인 예매분 4만1800여석 중 75%가 지난 12일 예매 오픈 첫날 판매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날 판매분 2만1600여석을 뛰어넘은 수치로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실감케 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사전 오픈한 개·폐막식 티켓도 전석 매진됐다. 특히 개막작인 다르덴 감독의 '토리외 로키타'는 일반 상영좌석까지 매진

되며 올해 최고의 화제작임을 증명했다.

국제경쟁작을 향한 관심도 뜨겁다. 말레나 최 감독의 '조용한 이주', 마리아 아파리시오 감독의 '구름에 대하여' 등 총 10편이 매진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장성호 사무처장은 "개막 전부터 판매할 티켓이 없어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며 "가능한 많은 관객이 우리 영화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27일 배우 진구·공승연의 사회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마당에서 개막식을 열고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뉴시스

#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사업 참여가맹점 모집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누리사업 참여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찾아가는 장터를 개최하는 문화누리 문화장터, 가맹점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에 품목을 전시 및 판매 연계하는 문화누리 문화박스, 가맹점만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비대면 문화누리장터, 전북지역의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투어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문화누리 투어서비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나 관련 업체는 5월 16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제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tr.or.kr)와 교육문화팀(063-230-7541, 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 '바람굿 한마당' 성료

전라좌도진안중평굿보존회(회장 이승철)는 18일 마이산남부 일원에서 '바람굿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한 '바람굿 한마당'은 마이산남부를 중심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전라좌도진안중평농악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봄기운을 맞이하며 온 관광객들이 중평농악의 흥겨운 가락에 취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환호와 박수로 공연을 맞이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차배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원잔재래기' 가락으로 흥을 돋우며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굿관에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했으며 새를 쫓는 '발기' 시연으로 관객 참여를 유도하고 '반잔재래기' 가락으로 관객 모두가 하나되는 대동 한마당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한편, 진안중평농악은 2020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꾸준히 보존과 육성에 심혈을 다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